PP, 10월 내수가격 50달러 인상!

크리스마스 특수로 수요증가 … 호남사고 따른 공급차질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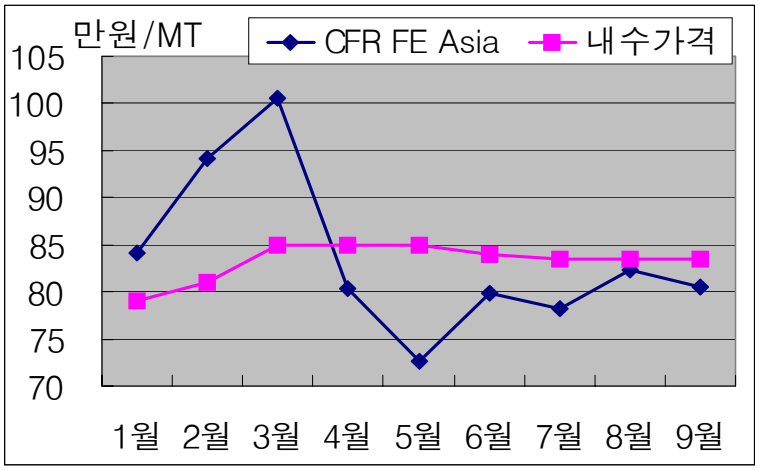
9월 톤당 82만-84만원에 거래됐던 PP(Polypropylene) Homo/Rafia 내수가격이 10월에는 톤당 50달러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PP 생산기업 관계자는 "중국이 10월1일부터 10일까지 국경절을 맞아 국내 PP 재고량이 많아진 상태이지만, 12월 크리스마스 특수를 맞이해 중국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호남석유화학의 HDPE 제3공장 폭발 당시 정전으로 가동이 중지된 PP 플랜트가 10월16일경 정상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HDPE 플랜트 가동정지에 따라 Ethylene의 잉여분 처리대책이 세워지기까지 Propylene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PP 플랜트가 가동된 후에도 100%의 가동률을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PP 생산기업 관계자는 "국제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와 더불어 호남의 플랜트 가동중지로 PP 가격이 탄력을 받아 가격 상승이 확실시된다"고 주장했다.

PP 가격추이(2003)



PP 내수가격은 보통 9월과 10월 상승한 후 11월에 동결돼 12월부터 이듬해 1월과 2월에 바닥을 치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PP 내수가격은 수출가격에 영향을 받는데, 예전에 내수가격이 수출가격보다 톤당 7만-8만원에서 크게는 15만원이나 높게 거래 됐다.

그러나 2003년 들어서는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PP 생산기업의 가격인상분이 수요기업에 전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3월과 4월에는 국제가격이 내수가격에 비해 100달러 높게 거래됐다.

2003년 PP 내수가격은 1월 톤당 78만-80만원, 2월 80만-82만원, 3월부터 5월까지 85만원으로 동결된 후 6월에 84만원, 7-9월 83만-84만원에 거래됐다.

2003년 PP 국제가격은 CFR FE Asia 톤당 1월 719달러, 2월 794달러, 3월 803달러로 상승한 후 4월 663달러로 톤당 140달러 폭락했고 5월에는 603달러까지 하락했으며 6월 670달러로 상승한 후 7월 663달러, 8월 698달러, 9월 690달러에 거래됐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10/16>